

이호해수욕장은 코로나 방역 해방구?

제주시 9월 1일부터 음주·취식금지 명령 해제 방역수칙 위반행위 잇따라... 쓰레기도 뒤범벅 주민 “이젠 단속도 없는데 무법천지될까 걱정”

제주도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까지 연장했지만, 제주시는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해제와 함께 감시인원까지 전부 철수시켜 방역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0시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해제했다.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해제 사흘째인 3일 오후 11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엔 여전히 노상객들의 술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비가 왔던 탓인지 노상객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들도 종종 발견됐다.

이와 함께 백사장 내에도 몇몇 노상객들이 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남은 자리엔 각종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어 미관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호해수욕장 인근 주민 박모(65)씨는 “아침 산책을 나오면 똥

고 있는 쓰레기들로 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라며 “날씨가 좋아지면 많은 노상객이 다시 이 곳을 찾을텐데, 단속도 끝나버려 무법지대가 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카페와 식당 등 객장 내 영업 가능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함과 더불어 오후 6시 이후 백선 점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또 다시 이호테우해수욕장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기준으로 대응지침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속할 근거가 없어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해제돼 단속요원들도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인파로 가득한 이호해수욕장 주변(사진 맨 위)과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백사장(가운데), 노상물판 이후 버려진 쓰레기(사진 아래). 강민성기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등 38건 적발 경찰 7월부터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대상 점검

제주경찰이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총 760여개 업소에 대해 두달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인력을 나눠 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일대, 서부경찰서는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서귀포경찰서는 서귀 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점검결과 총 3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방역수칙 위반은 28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10건이다.

이와 함께 카페나 바 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음주측정 거부에 순찰차 들이받아도...

법원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방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촬영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에 뺨을 때려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확인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208%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까지 손괴해 죄질이 무겁

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56분쯤 제주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자신의 차량을 전진해 순찰차 뒷범퍼를 충격한 뒤 후진해 또 다른 순찰차 앞범퍼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고씨 역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증상 제주여행 '강남모녀' 손해소송 청구액 1억3200만원 놓고 공방

모녀측 “도, 지출증빙없이 단순 추정... 인정 못해”
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리침해 비용 응당 내야”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제주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 손해배상 청구액 바뀔까-이 재판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강남모녀의 딸이 여행 첫 날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해 임시 폐업과 밀접접촉자가 속출,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방역 비용 등을 모녀에게 청구하며 시작했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하지만 강남모녀 측은선 비용 소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 측이 주장한 소송 비용은 2월

부터 9월까지 발생한 400여명의 자가격리 지출비용의 평균값을 낸 후 강남모녀 확진으로 인한 밀접접촉자 25명을 곱해 책정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자가격리자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각각 다르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추정된 비용은 인정할 수 없고, 발생된 접촉자의 자가격리비용을 정확히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비용은 응당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측 변호인은 “이들 모녀에 의해 자가격리된 25명의 실제 지출 자료를 확인, 생활 지원비용을 산출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강남 모녀의 증상 발현일 '갑론을박'-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입도 당

시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됐고, 이를 알고도 여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감염 증상은 첫 날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딸이 기존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에서 병원을 방문했던 이유도 축농증 증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변호인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및 제주도 입도 시 발열증상이 없어 찾았던 병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날 돼야 내세를 맡지 못하자 코로나 감염을 의심했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건소를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마지막 날 코로나 증상이 발현돼 급히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민성기자

“10일부터 선거에 영향 끼치는 행위 할수 없어”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1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크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U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